

전기차 무상점검받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

-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14개 전기차 제작사 무상 안전점검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, 기아, 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일부 제작사는 5월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하여 실시하고 있다.
-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‘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’(‘24.9.6.)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제작사에 무상 안전점검을 권고하며 추진되는 사항이다.
- 이번 안전점검에는 현대·기아·KG모빌리티(국산), BMW·벤츠·테슬라(수입) 총 14개사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.
- (👉 제작사별 세부일정 참고자료 첨부)
- 특히, 현대·기아·폭스바겐·아우디 등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의 상태,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.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등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하며,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구 버전 배터리 관리시스템(BMS)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고전압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진행하며, 리콜 이행 여부도 확인하여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전기차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 센터로 예약·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차량의 선제적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다.
- 향후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리콜을 미이행한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
에서 부적합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.
- * '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' 및 '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' 일부개정안
입법예고중 ('25.4.30.~'25.6.9.)
-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작년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
전기차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전기차 이용자들께서 적극적으로
이번 무상 안전점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”며,
- “앞으로도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와 제도 개선을
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용선	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송주화	(044-201-3919)
			주무관	박성준	(044-201-4999)

참고

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제작사별 세부일정

제작사	대상 차종	점검 기간	문의처
현대	전기차 전 차종	연중 상시	080-600-6000
기아		연중 상시	080-200-2000
KG모빌리티		'25. 5. ~ '25.12.	080-500-5582
르노		'25. 5. ~ '25.12.	080-300-3000
한국지엠		'25.7(예정) ~ '25.12.	080-3000-5000
폭스바겐/아우디		연중 상시	(폭스바겐) 080-767-0089 (아우디) 080-767-2834
재규어랜드로버		연중 상시	080-894-1000
스텔란티스		'25. 4. ~ '25.12.	080-365-1200
포르쉐		'25. 6. ~ '25.12.	080-8100-911
폴스타		'25. 6. ~ '25. 8.	080-360-0100
테슬라		'25. 7. ~ '25.12.	080-617-1399
BMW		'25.7(예정) ~ '25.12.	080-269-3333
벤츠		'24. 8. ~ '25.12.	080-001-1886
볼보		'24. 8. ~ '25. 7.	1588-1777

* (벤츠, 볼보) 작년부터 시행한 무상점검을 지속 실시 중으로, 필요시 연장 예정

** (BYD) '25년 최초 판매로, 차량 인도 후 3개월 또는 5,000km 도래시 무상 점검